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 (18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제주도, 중국인 유학생 특별 수송 3월 중순까지 연장
- 확진자 접촉 대비해 1인 격리병실 확보 추진
- 25일 입주 앞둔 탐라영재관, 코로나19 ‘철통 방어’
- 재난안전 특교세 2억4000만원 투입… 추가 재원 확보 총력

2020. 2. 18.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 2. 18.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동향('20.2.18. 09시 기준)

- (전국) 확진환자 30명 (20명 입원 중, 10명 격리해제)
- (제주) 확진환자 0명

< 국내 발생동향('20.2.18. 09시 기준) >

단위: 명

구분	확진 환자(누계)		
	계	격리 중	격리해제
전국	30	20	10
제주도	0	0	0

□ 입도객 현황('20.2.17.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25,744명
 - 총 입도객 수는 작년 같은 날 대비 33.9% 감소(38,965명→25,744), 전일 대비 4.3% 감소(26,889명→25,744)
 - 내국인 25,105명(97.5%), 외국인 639명(2.5%)이 제주를 방문
 - 중국인 관광객은 6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0.9% 차지

< 입도객 현황('20.2.17. 기준) >

단위: 명

구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타
일계	2020년	25,744	25,105	639	6	48	585
	2019년	38,965	35,519	3,446	2,271	153	1,022
	증감률	△33.9%	△29.3%	△81.5%	△99.7%	△68.6%	△42.8%
누계 (2.4~)	2020년	309,226	295,315	13,911	1,611	1,191	11,109
	2019년	539,186	481,915	57,271	36,554	3,009	17,708
	증감률	△42.6%	△38.7%	△75.7%	△95.6%	△60.4%	△37.3%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2. 18.(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710-8820
동영상 (웹하드): 있음 ☒ 없음 ☐		사진 : 있음 ☒ 없음 ☐		후속 자료 없음

제주도, 중국인 유학생 특별 수송 3월 중순까지 연장

- 국내선 전체로 확대해 개강 시까지 운영... 14일간 머무를 임시 생활시설 확보 노력 -
 - 17일 대학 관계자들과 중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 논의 -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별 수송을 국내선 전체로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3월 중순까지 연장한다.
- 이는 지난 17일부로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임시 중지됨에 따라 다른 지역을 통해 입도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도내 4개 대학들이 모두 2주 이상 개강 연기(3.16일 이후)를 결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도는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도에 대비해 입국 후 14일 동안 머무를 임시 생활시설을 대학들과 함께 파악하는 등 중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 감염증 확산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지난 17일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주대, 관광대,

국제대, 한라대 국제교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는 오는 2월 말과 3월 초에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각 대학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지난 16일 총리주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 시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한 각 대학별 입장과 계획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 현재 도내 대학들은 교육부가 입국 유학생을 ‘입국 시-입국 후 14일-14일 종료’ 단계로 구분해 관리를 강화할 것과 신입생과 편입생의 휴학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대학별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2월 말 이후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휴학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아울러 각 대학에서는 기숙사를 비롯한 건물 전체의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 등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행동요령과 예방 수칙들을 개별적으로 안내 중이다.
- 도는 대학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입도 현황을 사전 파악하고, 입국 시부터 별도 수송 차량을 지원해 기숙사와 숙소까지 유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특별수송 인원은 지난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103명(2.1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도의 특별수송과 관련해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호평이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학 내 기숙사 등 임시 생활시설 이

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체계적인 협조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 도내 각 대학들은 입도 유학생 전원에 대해 임시 생활시설을 마련해 14일간 임시 생활토록 조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학교에 정상 복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붙임

코로나 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요약

- 중국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요지 -

- ▶ 국내 입국 시기와 입국 인원을 대학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현재 2월 5일 교육부의 개강연기 권고에 대하여, 4년제 대학 기준으로 91.4%인 181개교 대학이 3월 개강시기를 1~2주 연기
- ▶ 신입생과 편입생의 휴학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학사 조정 안내
 - § 비자발급이 지연되거나, 해당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입국예정일과 거주지를 사전에 대학에 알리지 않는 경우는, 20년 1학기 휴학 안내 및 적극 유도
 - § 중국 체류중인 유학생은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 다양한 온라인 수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원격수업 준비 지원
- ▶ 입국 유학생을 “입국 시-입국 후 14일-14일 종료” 단계로 구분 관리 강화
 - § (입국단계) 중국 체류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며, 입국 심사시 유증상자는 보건당국에 의해 즉각 조치, 무증상자만 입국 허용
 - § (14일 등교중지 기간동안) 기숙사 혹은 자신의 거처에서 머무르고, 학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카드 사용 제한 조치, 매일 1회 이상 해당 학생들의 상황 점검 등 모니터링 시행, 필요시 학생거처 방문
 - § (14일 종료 후) 유학생들은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학교에 정상복귀
- ▶ 대학별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소통을 높여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 예방

확진자 접촉 대비해 1인 격리병실 확보 추진

- 제주도, 도내 의료기관 8개소와 민·관 협조체계 구축 논의 -
- 방역물품 확보 및 의료인력 공백 대비 대체인력 마련 계획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위험상황에 대비해 도내 의료기관 8개소와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특히,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입원환자의 1인 1실 수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염병 2차 전파 방지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도는 18일 오후 4시 도청 2청사 보건건강위생과 회의실에서 도내 의료기관 8개소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방안에는 ▲확진자 접촉환자 대응계획 ▲민·관 협조체계 사전 구축 ▲방역 자원동원 및 투입계획 마련 ▲대체인력 확보·투입 계획 수립 등이 담겨있다.
- 도는 앰블런스 확보 등 구체적인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도·보건소·의료기관 간 업무 담당자와 총괄연락체계를 재정비해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또한 수용 병실 내 감염방지 및 의료인력 보호 등을 위해 방역복, 고글, 의료용 고무장갑,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적극 확보하고,
-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공백에 대비한 인력 확보·투입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도는 현재 ‘감염병 확진자 제로’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그동안 도는 ▲지난 7일 코로나19 대응절차(5판) 개정*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증상이 미약하나 폐렴이 발견될 시 적극 검사 ▲민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방역체계 구축 ▲제주 공·항만 국내선 발열감시 체계 구축 등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진행해왔다.

* 사례정의(의사환자) 3번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또한, 중국 등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37.5℃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및 폐렴 발견 시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의한 의사환자의 사례 정의보다 확대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 한편, 제주도의 감염병 검사 건수는 18일 현재 114건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또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만 입도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를 진행한 결과, 총 676명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이 중 일부 환자는 병원 진료 등이 이뤄졌으나 확진자는 없었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2910

25일 입주 앞둔 탐라영재관, 코로나19 ‘철통 방어’

- 제주도, 탐라영재관 「코로나19 예방·대응 계획」 마련… 입주 초기부터 선제적 관리 -
- 상황 종식 시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학생 안전관리 도모 -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대학 개강을 앞두고 탐라영재관 입주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방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상황 안정 시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 이는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29·30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가운데, 감염 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확대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탐라영재관 내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과 탐라영재관내 운영팀으로 비상대책반을 꾸렸으며, 오는 25일 입주에 대비한 단계별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 지난 15일부터 탐라영재관 입주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현재 도는 입주 예정 인원 236명(남학생 84명, 여학생 152명)에게 1대1로 연락해 가족을 포함한 중국 여행 이력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 더불어 발열·호흡기 질환자 및 접촉자, 중국 방문자는 오는 25일 입주일 기준으로 14일이 미경과시엔 입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안내 중이다.
- 학생들의 입소 등록 시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

-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탐라영재관 내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에서 즉시 격리와 지정병원 이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증상자는 강서구 보건소 구급차를 통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며 감염 예방을 위해 직원 및 입주생에 대한 상황전파 및 접촉자 심층 역학 조사가 이뤄진다.

* 서울 5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일병원

- 더불어 탐라영재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까지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매일 점호시간과 출입구 등에서 1일 1회 이상 증상 이상 여부 확인과 발열 체크가 이뤄진다.
- 손 씻기, 기침예절, 악수 등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구에는 예방수칙 안내문이 부착됐으며, 체온계를 비롯해 손소독제 및 1회용 마스크도 비치됐다.
- 학생들의 입주 시에는 학생 식당과 공용화장실의 위생 관리를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 도와 탐라영재관은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유증상자 발생 시 발견 즉시 신고,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17일 공유했으며, 기숙시설 내 방역 소독 및 위생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관련 문의: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김원철 인재정책팀장 064) 710-8821

재난안전 특교세 2억4000만원 투입...추가 자원 확보 총력

- 도, 방역활동 강화에 활용... 3차 교부 대응위해 중앙 절충 강화 -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교부받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를 활용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 도는 지난 5일 1차 교부에서 5000만원, 지난 14일 2차 교부에서 1억9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의 특교세를 지원 받았다.
- 이번 특교세 교부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방역활동 강화 등에 따른 조치로, 교부 기준은 시·도별 인구와 감염병 확진자, 접촉자, 수용시설 등이다.
- 도는 특교세를 투입해 ▲마스크,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 ▲생활수칙 안내서 제작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 아울러 도는 앞으로 다가올 3차 교부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교부세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도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도 재난대응과와 안전정책과, 보건건강위생과 등 관련 사업부서들과 협력해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적극 방문·건의할 예정이다.
- 특교세 3차 교부 일정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앞으로 도는 도내 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이 없는 가운데서도 바이러스에 안전한 관광과 청정제주 사수를 위해 위생 관리와 방역조치 강화 등에 지속 나선다는 계획이다.
- 특히,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방역, 피해 업계 지원 등을 위해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김용석 팀장 064) 710-2321

-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4. 감염병 예방수칙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꼭!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유행국가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국민 여러분!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용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선별진료소 갈 땐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타인과의 접촉 삼가**



의료진 여러분!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A, ITS 활용 등)



**진찰 시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보건소로 신고**

참고 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 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뼉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옷 소매로
가리기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